

# 「조신(調信)」의 수용과정에 나타난 의미변화 연구

- 이광수의 소설 『꿈』과 배창호의 영화 『꿈』을 중심으로 -

조성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서사 수용과 의미변화
- III. 마무리

## 【국문초록】

이광수의 소설 『꿈』은 「조신」을 수용하고, 배창호의 영화 『꿈』은 이광수의 것을 수용하였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근원적 욕망의 변화를 더듬어 인간이 자신의 삶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꿈을 소재로 하여 ‘깨달음’이라는 서사의 특성을 살리고, 작가의 의도를 쉽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이점 덕분이다.

「조신」은 꿈속에서 욕망전개보다는 삶의 문제를 확장하여 인간이 그것에 대응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광수의 소설 『꿈』은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배창호의 영화 『꿈』은 왜곡된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꿈을 통해 조신은 각몽 후 참된 진리를 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신」이 이광수의 소설에 수용되고, 이것은 다시 배창호의 영화에 수용되어 그 의미가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 욕망, 꿈, 깨달음, 수용, 의미, 변용

---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I. 머리말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서사문학은 특정한 시대나 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다.<sup>1)</sup> 우리의 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해 볼 때 꿈은 영웅담의 신화, <조신>과 같은 설화, 이규보의 <夢記>와 같은 '記'양식, 몽유록, 몽자류 등을 포함한 서사양식, 고시조, 가전, 한시, 야담 등 제양식에 걸쳐 다양하게 수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단 고전에서 뿐만 아니라 '꿈'은 현대문학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학적 소재이다.<sup>2)</sup> 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것은 꿈과 이야기는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3)</sup>

특히 꿈은 프로이트가 말한 바와 같이 소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많은 이들은 『조신』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조신』은 『삼국유사』 제3권 「낙산의 두 보살 관음·정취, 그리고 조신」<sup>4)</sup>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장덕순은 『조신』이 소설이 갖추어야 할 여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논하였는데<sup>5)</sup> 현대소설에서 『조신』을 가장 먼저 수용한 사람은 김동인이다. 그

1) 양언석, 『꿈의 관념과 소설변이과정연구』, 『인문학연구』2,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p.168-169.

2) 김미령,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 연구』33,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113.

3) 양언석은 『꿈의 관념과 소설변이과정연구』(『인문학연구』2,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에서 꿈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성행한 것은 꿈을 중시하는 관념에서 기인되었다고 논한다. 그는 꿈 자체가 소망 실현의 행위를 내포하므로 꿈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은 소망충족의 의미를 소설로 변이시켜 작가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의미장치라고 보았다.

4) 일연, 이동환 역, 『삼국유사』, 도서출판 장락, 2000, pp.253-256.

러나 김동인의 단편소설 『조신의 꿈』에서는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어 본격적인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sup>6)</sup> 해방 후 이광수는 『조신』을 『꿈』이라는 중편소설로 내놓았다.<sup>7)</sup> 신상옥은 1955년에 『조신』을 영화화하였고, 1967년 오영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영화화 하였다.<sup>8)</sup> 이후 배창호는 1990년에 영화 『꿈』을 내놓았다. 『조신』은 소설 1편과 영화 3편에 수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남정희는 『조신』이 매체간 변용을 수월하게 일으킨 근거로 환몽구조를 통해 인생을 두 번 살아보는 효과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광수와 배창호가 조신이 꿈을 꾸고 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도를 닦게 되었다고 끝냄으로서 종교적 색채만 강조한다고 보았다.<sup>9)</sup> 송백헌은 춘원의 『꿈』이 승(僧) 조신의 가체험(假體驗)을 통해 현세적 욕망을 실현하게 되는 일

5) 이용남, 『『조신』의 소설화 문제 - 『잃어버린 사람들』·『꿈』을 중심으로』, 『관악어 문연구』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p.195.

6) 남정희, 『『삼국유사』 소개 설화 『조신』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 이광수 소설과 신상옥·배창호의 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7, 국제어문학회, 2013, p.209.

7) 이광수는 단편소설과 중편소설을 ‘꿈’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았다. 1939년 7월에 잡지 『문장』 임시증간호에 발표한 것과 1947년 면학서관에서 발표한 중편소설이 그것이다. 단편소설 『꿈』은 꿈속에서 어떤 유부남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고통 받는 이야기이다. 그의 이런 감정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갖는다. 심지어 불륜의 대가를 지옥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편소설 『꿈』은 조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고가 자료로 삼는 것은 송창헌이 엮고 해설한 중편소설 『이광수 꿈』(지식의 숲, 2013)이다.

8) 본고가 신상옥의 영화를 다루지 않은 것은 꿈속으로 들어가기 전과 꿈속 장면이 이광수의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꿈에서 깨고 난 뒤는 배창호의 영화 『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배창호의 영화는 이광수의 소설과 신상옥의 영화와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내용도 달라 영화 갈래는 배창호의 것을 통해 의미 변화를 비교하려고 한다.

9) 남정희, 앞의 논문, p.201. “조신설화가 이렇듯 계속 수용되는 것은 꿈을 통하여 인생을 두 번 살아보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춘몽을 그린 작품이라고 보았다.<sup>10)</sup> 이상우는 「조신설화」의 3단 환몽구조가 이광수의 소설에서 「도피 - 추적 - 살인- 추적」이라는 극적 사건(행동)을 부여함으로써 서사적 흥미를 증대시켰다고 서술하였다. 그 당시 이광수의 『꿈』이 대중적 인기를 누린 것은 이와 같은 도피와 추적의 플롯을 이용한 극적 소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sup>11)</sup>

본고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조신」 이후의 작품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창작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꿈’이라는 공통 소재를 통해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는 작자에 따라 변용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은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이다. 먼저 「조신」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광수는 「조신」을, 배창호는 소설을 어떻게 변개하여 수용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깨달음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바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II. 서사 수용과 의미

「조신」, 이광수의 소설 『꿈』, 배창호 영화 『꿈』은 현실을 욕망하는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조신」에서는 조신(달레)과 외부환경과의 갈등을, 이광수의 소설 『꿈』에서는 조신

10) 송백현, 「춘원의 「꿈」에 나타난 전승 모티프의 수용양상」, 『국어국문학』1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0, pp.87-99. p.91.

11) 이상우, 「<꿈>의 각색과 그 의미- 이광수의 소설, 오영진의 시나리오, 신상옥의 영화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1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2, pp.211-213.

과 모례의 갈등을, 배창호의 영화 『꿈』에서는 조신과 달례와의 갈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이 서사의 갈등을 축으로 하여 조신은 꿈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들의 특징은 꿈을 깨고 나서 삶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것이 각 작품이 추구하는 의미로 표출된다. 따라서 이 세 꿈의 공통점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2)</sup> 이처럼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조신의 깨닫는 바가 모두 한 가지 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욕망의 주체가 자신의 욕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꿈이라고 할 때, 『조신』을 수용한 작품들에서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조신』의 서사적 의미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고서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讀此傳 掩卷而追繹之)’라는 대목 때문에 『조신』은 원문이 아니라고 논의되었다. 또한 일연이 훨씬 더 긴 분량의 것을 독서한 후 재편집하여 초술(抄述)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단정 지을 수가 없으며, 원래의 작품을 전재하였거나 약간의 변화가 동반되었던 작품으로도 고찰된 바 있다.<sup>14)</sup> 이윤석에 의하면 “김씨랑의 대사는 매우 아름답고 세련된 것으

12) 이광수의 소설과 배창호의 영화에서 확인한 증거를 구할 수 있다. 소설 『꿈』에서는 조신과 평목이 길을 쓸고 있을 때 용선 대사가 “너희 마음에 묻은 티끌을 닦아 버리듯이 깨끗이 쓸라”고 한다. 영화 『꿈』에서는 조신이 옛날 머물던 절을 찾아온다. 그는 절문 밖에서 “조신아, 문밖의 눈은 쓸었느냐?”, “이 녀석아, 눈을 쓸어야 길이 보이지.”라고 하는 노 스님의 음성을 회상한다. ‘눈’과 ‘티끌’은 꿈을 통해 제거된다. 이는 세 갈래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다.

13)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조신전을 해부함-』, 『어문학』32, 한국어문학회, 1975, p.123.

14) 오대혁, 『『조신전』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p.365.

로 특별히 문장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쓰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것을 보면, 조신설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줄거리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세련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전되는 설화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설사 이 설화가 구전되는 설화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정착시킨 사람의 창작의도가 들어갔다고 본다”는 것이다.<sup>15)</sup>

선학들은 주인공 조신의 삶을 통해 작자의 의도를 고찰한 바 있다. 이것이 곧 「조신」에 나타난 작가의 주제의식이며 작품의 의미다. 「조신」은 세속적 욕망을 갖고 있는 한 인간(조신)이 어떻게 훌륭한 수도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며<sup>16)</sup>, 주인공 조신이 자신의 현세적 욕망을 꿈을 통해 실현하는 일장춘몽·남가일몽을 그리고 있다고도 한다.<sup>17)</sup> 또한 이를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조신이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논해지기도 하였다.<sup>18)</sup> 어떤 이는 「조신」의 주사상은 공사상이며, 관음신앙이 배경에 짙게 깔려 있다고도 한다.<sup>19)</sup> 더불어 「조신」이 소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과<sup>20)</sup> 꿈을 통한 깨달음을 보여준다는

15) 이윤석, 「調信說話의 문학적 가치에 관한 소고」, 『국제전통문화연구』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8, p.186.

16) 이윤석, 앞의 글, p.179.

17) 장덕순(『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p.28)의 설화 분류표에 ‘신앙가치담’의 하위항 ‘4. 꿈에서 「조신의 꿈」을 ‘一場春夢’으로 유형화 하였다. 송백현(앞의 글, p.88.) 뿐만 아니라 이용남(앞의 글, p.197.)도 조신설화는 조신의 꿈을 통한 人生無常, 諸行無常, 萬有無常의 구조를 지닌 설화라고 하였다.

18) 남정희, 앞의 글, p.202.

19) 임철호, 「조신설화 연구」, 『연세어문학』7-8, 연세어문학회, 1976, pp.270-274.

20) 「조신」을 소설로 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준모(『신라한문학사』, 『신라가야 문화연구』4, 영남대 가라문화연구소, 1972)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채용복(「조신구조의 분석적 고찰」, 『어문학』49, 한국어문학회, 1988)은 극명한 현실반영과 뚜렷한 작자의식과 자아와 세계의 상호우위에 입각한 대결 등으로 전기소설이라고 논의하였다. 김광순(「조신전과 침중기에 나타난 꿈의 양상과 의미지향 연구」, 『한국고소설사와론』, 새문사, 1990)과곽정식(「<조신전>의 갈래 규정」, 『논문집』21-2, 경성대학교,

것을 생각한다면 『조신』의 이해는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른 갈등 전개와 해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신』의 꿈 이전은 꿈을 꾸도록 만든 현실적 욕망이 서사된다. 따라서 조신의 욕망이 부각되고 점점 강하게 표출되어 간다. 조신은 승려라는 구도자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금기시하는 여자를 욕망하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김씨랑은 그 고을 태수의 딸이므로 신분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조신의 사랑은 갈등의 시발점으로 형성된 것이다. 스님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 차별의 벽이 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마련된 것이 '꿈'이다.

조신은 꿈을 꾸기 전에 수년간이나 김 혼의 딸과 인연되기를 빌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 그는 관음보살 앞으로 가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을 원망하며 슬피 울었다. 그녀가 결혼을 했다면 조신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웠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관음보살을 원망한다. 그는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참된 열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설화의 주인공인 것이다.

『조신』의 김씨랑은 꿈에 반가운 얼굴로 나타나 조신에게 부부가 되기를 청하였다. 이것을 통해 꿈속에서 조신과 김씨랑과의 부부연이 순리인 것처럼 보여진다.

- ① 대사님을 사모하여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 ② 부모님의 명령에 몰려 마지못해 시집을 갔다.
- ③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힐 반려가 되고 싶어 왔다.

시집을 갔는데도 다시 돌아와 조신에게 적극적 구애를 하는 김씨랑 덕

분에 조신의 어긋난 욕망은 타당성까지 보장받는다. 그래서 조신은 기뻐하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파계한 것이다.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후 김씨랑은 눈물을 흘리며 조신에게 말하였다. 50년 동안 쌓은 정과 두터운 연분은 헤어질 순간에 짐이 되고 더 고통스러운 번뇌의 지름길이 되었다고 한다. 부부의 갈등으로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유랑생활, 굶주림, 자녀의 죽음, 늙음, 질병과 같은 외부적 영향이 부부를 이별하게 만든 것이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으로 서로 함께 했음에도 극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신이나 자신이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결국 운명이라고 김씨랑이 말한다.

조신은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워했다. 부모의 뜻에 따라 시집을 갔음에도 조신을 사모하여 되돌아온 김씨랑이 조신과 이별을 결심한 것은 그만큼 삶의 고통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조신이 흔쾌히 이별을 수락했다는 것을 통해 조신의 괴로움도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조신의 머리털이 하얗게 세어 있었던 것에서 아내와의 이별을 애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고통으로 괴로웠던 조신을 만날 수 있다. “조신은 명칭히 낮이 나간 듯, 인간 세상에의 뜻이라곤 전혀 없었다.”<sup>21)</sup>고 한다. 이는 꿈속에서 “이미 인간의 고된 생애에의 염증”<sup>22)</sup>으로 괴로움과 충격이 심했기 때문이다. 김씨랑과 부부연을 맺고 싶었던 조신의 욕망은 세상의 괴로움으로 전복되어 그가 꿈을 깬 후 “탐욕의 마음은 얼음이 녹아버리듯 말끔히 가시었다”<sup>23)</sup>고 전한다. 따라서 『조신』은 현실의 욕망을 꿈속에서 성취한 것이 아니다. 조신은 극도의 고통을 통해 인간의 나

21) 일연, 이동환 역, 앞의 책, p.255.

22) 일연, 이동환 역, 위의 책, p.255.

23) 일연, 이동환 역, 위의 책, p.255.

약함을 깨닫고 욕망의 허망함까지 깨닫는 경험을 꿈속에서 한 것이다. 꿈속은 조신의 욕망 전개보다는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여 인간이 그것에 대응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성보다는 운명을 인정하고, 이별한 후 불교에 귀의한다는 『조신』의 설정은 당대 신분간 불평등과 신라 말 유랑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일연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조신이 사재를 털어 정토사를 짓고 선업을 부지런히 닦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신앙의 공덕을 통해 보다 높은 종교적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신의 이러한 종교적 선의지(善意志)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최종단계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신』은 대비관음이 이적을 나타낸 전기의 한 토막이다. 낙산사와 관련하여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의 2대 성인이 관세음보살의 이적을 만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도입구조에서 속인인 조신은 본사에서 농장 감독으로 파견된 중이면서도 세속적인 소망을 탈속한 성인인 관음보살에게 기원하자 관음보살은 그의 소망대로 꿈속에서 세속을 체험하도록 한다. 세속의 소망은 유가적 현실이다. 조신의 소망은 오직 태수 김 혼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므로 관음보살은 그에게 결혼한 후의 피로운 삶을 체험하게 했다. 그렇게 소망했던 김 혼의 딸과 결합했지만 행복은 잠시뿐 피로운 삶이 연속되어 염증이 나고 탐욕의 마음은 대비관음의 성상 앞에서 눈 녹듯 참회하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조신이 부부가 되기를 욕망하여 그 연분이 이루어져어도 그것을 소망충족으로 단정 짓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스님 조신

24) 최창록, 『환몽소설과 꿈이야기』, 푸른사상, 2000, p.48.

은 김씨랑과의 행복한 부부연을 욕망했던 것이지 괴로운 동반을 욕망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쁨의 연이 아니라 고통의 연은 더욱 큰 자아의 성찰을 위한 것이며 삶의 더 큰 충격을 통한 깨달음을 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조신」과 이광수 소설 『꿈』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겨났다.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시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소설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생기는 강렬한 의지, 실패와 좌절, 고독과 소외, 이런 것들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이를 매개로 인간의 내면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 현실의 묘사와 반영이 가능한 것이다.<sup>25)</sup> 「조신」은 “작자의 창의성, 문식의 가미, 사회현실의 반영, 의도된 허구성으로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잘 꾸며진 이야기”<sup>26)</sup>로서 소설로 이해되기도 한다.

구전으로 떠돌던 「조신」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하였다. 이광수는 이것을 소재로 삼아 중편소설 『꿈』을 선보였다. 그는 한국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사에서 일제의 친일분자가 되고 한국동란에서는 납북되어 병사(病死)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가정적으로도 불행의 연속이었으며, 어린 동학도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불교로 톨스토이주의로 무수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였다.<sup>27)</sup> 그는 해방 후 자신의 친일 행동으로 나타날 주변의 시선을 고심하며 독서로 소일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25) 광정식, 앞의 글, p.54.

26) 광정식, 앞의 글, p.50.

27) 정인량, 「정인량 칼럼 - 춘원 이광수의 꿈에 대하여」, 『기독일보』, 2013년 3월 8일.

있었으나 결국 가만히 있기로 하고 나는 역사와 철학서적을 읽으면서 그날그날을 보내었다. 나는 조선사, 그중에서도 이조 시대의 야사를 탐독하였고 시전·서전과 주역을 읽었다. 회람·로오마·영국·미국·러시아의 역사도 읽었다.”<sup>28)</sup>

이광수는 이 시기에 자신이 칠팔년 간 걸어오던 생각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상무념의 심경으로 세계와 민족의 장애에 대하여 명상할 여유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조국이 독립되었으므로 친일의 동기야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다시는 안 나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해방 후 약 이년 동안이나 글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이광수는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소설을 썼다. 그는 민족에 대한 것은 그의 주관적인 생각 이외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가운데 중편소설 『꿈』을 출판하였다.

“해방 후에 출판된 내 책 중에 『꿈』은 전반은 십여 년 전에 쓰다가 조선문출판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중지하였던 것을 끝을 막아서 낸 것이요”<sup>29)</sup>

해방 후 나타난 그의 작품들 중 『사랑』과 『꿈』은 사상적으로 보아 이광수의 만년, 종교적 경향 시기의 작품으로 『세조대왕』·『원효대사』 등과 같은 예에 드는 것이다. 『꿈』은 해방 후, 사회의 비난 중 사직에 칩거하여 『돌베개』를 쓰던 시기의 작품이다.

이광수가 만년에 도달한 <인생관>은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랑, 무차별 평등의 사랑, 모든 중생을 다

28)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3, p.282.

29) 이광수, 앞의 글, p.283.

애인같이 외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그가 말한 <끝없이 높은 사랑>이요, 인생의 최고 목표였다.<sup>30)</sup> 역사소설을 통해 민족의 전통적 정신과 민족의식을 그려 동포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시기에 그의 소설 『꿈』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가 『조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 『꿈』은 『조신』에서 막연하게 언급된 인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였다. 설화의 낙산대비는 소설에서 용선화상이라 명명되었고, 김홍공의 딸은 달례로 구체화되었다. 설화의 다섯 자녀는 ‘미력·달보고·칼보고·거울보고’로 그 이름이 붙었다. 이것을 통해 작중인물의 성격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설화에 없던 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하여 단순 갈등을 복잡화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건의 인과성을 중시했다는 점도 소설이 설화를 수용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또한 비록 외형적이거나 작중인물의 성격을 창조했다. 조신은 추남에다가 우유부단한 겁쟁이로 묘사되었고, 평목은 음험하고 야비한 인물로, 용선화상은 위엄있는 인물로 그려졌다.<sup>31)</sup>

소설 『꿈』은 『조신』과 같이 달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내적 갈등이 관음보살과의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된다. 이는 설화보다 소설에서 더 거세게 나타난다. 소설 『꿈』의 조신은 자신이 불도를 닦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용선대사를 찾아가 참회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설화에서의 조신과는 다르다. 그러나 달례가 화랑 모례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것을 듣고는 격한 감정이 치달아 오른다.

세 번째 달례가 옥으로 깎은 듯한 두 손을 머리 위에 높이 들 때에는 조신

30) 주요한, 『작품해설』, 『이광수 전집』 6, 삼중당, 1973, p.588.

31) 송하춘, 『<꿈>의 주제사적 조명』,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6, pp.92-93쪽 요약.

은 달려들어 불탑을 둘러엮고 달레를 옹기어 안고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았다. 관세음보살은 조신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듯, 그러나 그것은 비웃는 웃음인 것 같았다.

조신은 또 한 번 불탑에 달려들어 관세음보살상을 끌어내서 깨뜨려 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다시 관세음보살상을 우러러볼 때에는 관세음보살은 여전히 빙그레 웃고 계셨다.<sup>32)</sup>

소설 『꿈』의 조신은 세달사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김 태수의 딸 달레 때문에 자원하여 낙산사에 들어왔다. 『조신』에서는 본사에서 조신을 그 절의 관리인으로 파견했다고 한 것에 비교하면 소설에서의 조신의 욕망은 더욱 부각되어 있다. 또한 조신의 신분에 대한 염증이 관음보살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것을 통해 그 분노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조신은 용선화상을 찾아가 어떠한 악보를 받더라도 한이 없으니 달레와 연분을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조신의 욕망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용선화상이 도력이 뛰어난 신격화의 인물로 등장한다. 용선화상은 조신에게 관음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하고 소리 높이 불렀다.

얼마나 오래 불렀는지 모른다. 조신은 이 천지간에 제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소리가 짝 찬 듯함을 느꼈다. 달레도 다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어디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라 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오직,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만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이때였다.<sup>33)</sup>

32) 이광수, 『꿈』, 지식의 숲, 2013, p.30.

위에서 보듯이 소설 『꿈』에서의 조신은 관음기도를 통해 꿈 이전에 이미 무상의 단계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번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인물로서 설화의 조신과는 달라졌다. 조신은 달레와 함께 도망할 때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앞날과 내생을 걱정한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이 어긋난 것임을 순간순간 떠올린다. 이광수는 조신의 심리 저변에 ‘죄의식’이 흐르도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모레가 조신을 만났을 때도 모레는 죄의 항목을 조신에게 낱말이 열거하여 조신의 죄를 구체화시켜주고, 조신의 죄를 신랄하게 정죄한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이광수의 소설 『꿈』이 추구하는 바가 조신은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소설이 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 하고자 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조신의 애육에 찬 모습이 ‘죄의식’이 관통하는 소설 서사 위에 극화되어 묘사된다. 이것은 이광수의 『조신』에 대한 재해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의 육중생활은 왜곡된 욕망을 증거한다. “그는 처음 육에 들어왔을 때 모양으로 주력과 참선으로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생 인연이나 지어보려 하였으나 탐애와 질투의 폭풍이 불어 일으키는 마음의 검은 물결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sup>34)</sup>고 서사된다. 조신은 달레와 같이 살던 때를 그리워했고, ‘어느 놈이 내게서 달레를 빼앗았나?’<sup>35)</sup>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라고 묘사된다. 그는 형장에서 달레를 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죽는 것에 억울해하며 버둥거리다가 꿈을 꾀다. 따라서 소설 속 조신은 구도자로서의 원리적인 참회도, 일상인으로서의 현실적인 참회도 되

33) 이광수, 앞의 책, p.39.

34) 이광수, 앞의 책, p.165.

35) 이광수, 앞의 책, p.163.

지 않은 채 각몽한 것이다.<sup>36)</sup>

조신은 남의 아내자를 데리고 도망한 것과 살인죄를 반성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달례와의 육정을 생각한다.<sup>37)</sup> 죽음 앞에서까지도 애욕에 차 있다. 따라서 소설 『꿈』은 설화에서 보여주는 빈곤을 비롯한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애욕’으로 가득한 조신을 강조하고 있다.

조신과 달례가 부부연으로 살면서 모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 삶에 충실하던 그들이 모례의 등장으로 갑자기 죄를 참회하는 듯한 서사 또한 애욕을 부각시킨 것에서 온 어색함이라 할 수 있다.

조신은 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꿈을 꾀다. 꿈을 꾀 조신은 일심으로 수도하여 낙산 사성(落山四聖) 중 한 분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설 『꿈』은 『조신』을 수용하여 인간의 욕망에 따른 죄성을 고발하고 있다.

조신은 모례 앞에서 참회하며 무상에 드는 듯 했지만 현세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으로까지 전도된다. 그는 달례와의 행복이 파괴된 것에 억울해 한다. 그의 고통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므로 꿈을 꾸기 전의 왜곡된 욕망을 영원히 지속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신의 심리 상태는 각몽 후의 조신의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꿈 이전의 조신은 자신의 욕망이 죄라는 것을 아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신의 헛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력을

36) 불교에서 원리적인 참회는 ‘이참’이라고 하고, 현실적인 참회는 ‘사참’이라고 한다.(김호성,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한다』, 정우서적, 2012, p.27.)

37) “조신은 달례와 같이 살 때에 재미있고 즐겁던 여러 장면을 생각했다. 그 어여쁜 얼굴, 부드러운 살, 따뜻한 애정, 이런 것이 모두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을 가지고 또렷 또렷이 나타난다. 그때에는 따뜻한 방에 금침이 있고, 곁에는 달례의 부드럽고 향기로운 몸이 있었다.”(이광수, 앞의 책, p.163.)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조신이 각몽 후 “일심으로 수도하여 낙산 사성(四聖)이 되었다”는 것에 수궁이 간다. 그는 꿈을 통해 ‘인간의 욕망은 죽음 앞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욕망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광수의 『꿈』은 「조신」을 수용하여 잘못된 욕망의 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소설 『꿈』과 배창호 영화 『꿈』

배창호는 이광수의 중편소설 『꿈』을 소재로 삼았다. 그의 영화 『꿈』은 『황진이』에 이어 두 번째 사극으로 일컬어질 작품이다. 최인호가 85년부터 영화로 만들어보길 권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는 이를 감당할 만한 정신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만들지 못했다. 그는 『깊고 푸른 밤』으로 성공했고, 4년 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끝내 놓고 자신을 텅 비어놓은 채 지내던 시절, 사는 게 꿈이 아닐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꿈』이 다시 생각났다. 한국영화의 1980년대 중반은 배창호 시대였고, 그는 소모품적으로 흐르는 당대 작품들의 경향과 달리한 소재를 찾고 있었다.<sup>38)</sup> 그중 「조신」은 그의 고백과 같이 “예전부터 욕심을 냈던 제재”<sup>39)</sup>였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테마를 느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은 덧없는 것이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탐욕에 이끄러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더 심화 있게 해야겠다고 느

38) 김두호, 「보고 싶었던 기쁜 우리 배창호」, 『인터뷰 365』, (<http://interview365.mk.co.kr/news/517>), 2008년 1월 14일.

39) 유응오, 「배창호 감독 인터뷰 - 낙산사 문화제 복구 기원」, 『주간불교』 843호, 2005년 4월, (<http://cafe.naver.com/baechangho.cafe>)

긴 거예요. 그런 욕망의 파멸, 인간의 욕망의 원초적인 비극성, 그런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꿈』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심화 있게 이야기하기에 좋다고 본 거죠.”<sup>40)</sup>

위의 대화글에서 보듯이 배창호는 욕망의 폐해를 나타내고자 이광수의 『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영화 『꿈』에서부터 옛것과 새롭게 공부한 것을 합쳐 통합된 영화언어를 말하는 3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설 『꿈』은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잘 배합할 수 있는 영화 소재로 선택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41)</sup>

배창호의 영화 『꿈』은 설화와 소설과는 달리 작품의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다. 즉 꿈속의 내용이 플래쉬 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조신이 달레와 연분을 맺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된 기나긴 여정을 거친 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절로 되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곧 플래쉬 백으로 이어진다.)과 그 플래쉬 백의 첫 부분이 사실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후 이 현실은 관객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꿈과 연결된다.), 그리고 꿈속의 꿈과 환상(달레의 꿈과 조신의 죽은 평목에 대한 환영)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 등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관객이 조신의 꿈의 내용을 전혀 꿈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

40) 안재석, 『각색영화를 통한 배창호 감독 연구 - 각색 시나리오의 서사 변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195.

41) 배창호는 이렇게 전한다. “<꼬방동네 사람들>에서부터 <고래사냥2>까지를 1기, <황진이> <기쁜 우리 젊은 날>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2기로 나누는다면 <꿈>에서부터 배창호 영화의 3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1기는 이야기에만 충실하게, 영화 표현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 것이었다면 2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영화적 표현방법을 연구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3기는 옛것과 새롭게 공부한 것을 합쳐 통합된 영화언어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는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잘 배합하고 정확한 카메라로 예술성, 작품성을 추구해야죠”라고 했다.(<http://cafe.naver.com/baechangho.cafe>)

위해 세심히 배려된 구조이다.<sup>42)</sup>

영화 속 조신은 평묵으로부터 달레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달레가 재를 올리기 위하여 절에 들어섰을 때 조신은 그녀를 처음 본다. 평묵이 조신에게 고을 원님 김 태수의 큰딸이 정혼을 앞두고 축원불공을 드리러 올 것이라는 말을 할 때도 별반 반응이 없다. 이것은 『조신』과 소설 『꿈』에서 조신이 과거 오래 전부터 김씨랑(달레)을 간절히 사모해 온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영화 속 조신은 순간적인 애욕의 충동에 휩싸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신이 달레를 만난 저녁에 큰스님은 등을 굽어주는 그에게 “달레가 곱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그는 “썩은 나무도막처럼 보일 뿐입니다.”고 대답한다. 달레를 향한 욕망을 스스로 애써 외면하려 해 본다. 그러나 조신은 그날 저녁 달레 생각을 떨치지 못해 참선을 하는 도중에 관음보살 앞으로 달려간다. 그는 아귀축생이 되어도 좋으니 달레 아가씨와 연분을 맺게 해 달라고 애원한다. 그가 관음전을 나서자 마당 달빛 속에서 달레의 환영이 어린다. 조신은 쓴살같이 달레의 집으로 향한다. 조신의 강렬한 욕망에의 염원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부터 꿈이 시작된다. 따라서 영화 속의 조신은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애욕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번뇌를 털어내기 위한 그의 몸부림은 잠깐 동안의 기도와 큰스님 앞에서 이성으로 억압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세 작품 중 욕망을 강하게 억압하는 것은 영화 속의 조신이다. 스스로의 억압이 강한 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깨닫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신』과 소설 『꿈』의 김씨랑(달레)의 적극성은 조신의 왜곡된 욕망이 타당한 것으로 비춰지도록

42) 김지석, 「낭만적 탐색자」, 『영화연구』9호, 한국영화학회, 1993, p.88.

하지만, 영화의 조신은 달레에게 횡포를 저지른 애육에 찬 인물로 설정되었다. 영화의 달레는 조신의 희생양으로 설정되어 조신과 달레의 갈등을 예상하게 해준다.

이런 까닭에 영화에서는 조신과 달레의 갈등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sup>43)</sup> 달레는 조신을 사랑하지 않고, 달레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해도 조신은 그런 달레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달레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후 조신과 달레가 화랑 모레에게 쫓기며 살 때, 조신은 굶고 있던 달레가 자신의 죽을 받아먹지 않자 ‘송장 치울 힘도 없다’며 처음으로 화를 내게 된다. 조신의 내적·외적 심리의 변화다. 죽은 미력을 버리고 오는 길에 조신은 그녀에게 강력한 분노를 드러낸다. 미력이 죽고 모레에게 쫓겨 결국 달레는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조신이 처음 그녀를 안았을 때 달레는 조신이 모레인 줄 알고 부둥켜 안았다며 그녀가 처음부터 색기가 많았다고 힐난한다. 조신이 달레를 절에서 만났을 때도 그녀가 조신을 유혹할 생각으로 교태스럽게 웃었고, 평목도 달레가 먼저 유혹했다는 것이다. 그는 점점 극악해져서 달레 때문에 미력과 평목과 모레가 죽었다며<sup>44)</sup> 달레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까지 드러낸다. 이후 달레는 자신이 나병환자임을 알게 되고, 조신이 술에 취해 잠 든 틈을 타서 달보고(딸)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 가난하고 험악한 일을 겪었더라도 달레가 조신의 진정한 마음을

43) 『조신』은 외부의 영향(가난·유랑·자녀의 죽음 등)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제시하여 이별을 운명이라고 하여 조신(김씨랑)과 외적 환경과의 갈등을 심각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 『꿈』은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레의 정죄하는 입을 빌렸다. 따라서 소설은 조신(달레)과 모레와의 갈등이 드러났다. 그러나 영화 『꿈』은 조신과 달레와의 갈등이 크다.

44) 모레는 조신이 겨냥한 칼에 눈이 찢리고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신은 모레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시점이다.

느낄 수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영향으로 인한 이별보다는 두 사람의 갈등에 의해 이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 조신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깨닫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조신은 처음에 달레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므로 심한 고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반면 영화는 살인과 주변인들의 죽음(미력·평목·모레)이 조신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는 대신 달레의 탓으로 돌려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사가 장대하게 진행된다.

배창호의 영화 『꿈』은 이미 꿈속에서 달레의 죽음으로 조신의 각성이 일차적으로 드러난다. 모레를 마지막으로 만난 조신은 그에게 용서를 구한 후 자신이 머물던 절로 돌아온다. “이 몸쓸 조신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돌아왔다”고 통회하며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린다. 조신은 절을 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었다. 관음전 문을 연 그는 안도하는 미소를 너무나 환하게 짓는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이들의 죽음과 꿈속의 일들이 ‘꿈’인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다. 조신의 각몽 후 평목은 여전히 달레의 육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신은 달레가 재를 올리기 위해 절에 들어섰으나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조신은 꿈을 통해 진리 탐색에 성공한 것이다.

배창호는 자기 영화를 관통하는 큰 줄기가 ‘사랑’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sup>45)</sup> 그런 점에서 『조신』도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1990년에 제작된 영화만을 가지고 분류한 자료를 보면 배창호의 『꿈』은 멜로물에 해당한다.<sup>46)</sup> 그는 “이전의 영화 인물들이 모두 착하고 순수한 사

45) 김다인, 『배창호 감독의 ‘기쁜 나의 젊은 날’①』, 『인터뷰 365』, (<http://interview365.mk.co.kr/news/1389>), 2008년 7월 22일.

46) 『영화언어』 편집위원회 엮음, 『영화언어 - 1989년 봄에서 1995년 봄까지 II』, 시각과

람들이었다면 이제 『꿈』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착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다룰 생각이며, 파괴되고 마모되어가는 애육에 찬 사람을 그리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을 보여줄 생각이다.”<sup>47)</sup>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작품 세계의 변화를 인물에서부터 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달레의 자기희생의 과도한 상황 설정과 달레를 조신의 애육의 희생양으로서의 설정은 배창호의 『꿈』을 대중적으로 만든 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조신을 창조하기 위해 여자를 속죄양적 모티프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을 욕망하거나 그것에 집착<sup>48)</sup>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실에 대해 부리는 실체론적 고집이라는 것을 조신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욕망이 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고, 왜곡된 욕망이 가져온 불행을 꿈속에서 경험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조신』은 세계의 횡포 앞에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고 종교적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광수의 소설 『꿈』은 스스로 죄를 알고 욕에 갇히지만 죽음 앞에서도 욕망에 부침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배창호의 영화 『꿈』은 욕망에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에 왜곡된 욕망에의 집착 의지, 소유의 욕망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

언어, 1997, p.184.

47) 유용오, 『배창호 감독의 꿈』(배창호 감독님을 사랑하는 모임, <http://cafe.naver.com/baechangho.cafe>)

48) 불교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감정을 고정된 무엇으로 간주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김영진, 『공(空)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3, p.18.)

### Ⅲ. 마무리

본고는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다루어져 왔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일 작품일지라도 꿈을 소재로 하여 의미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신』, 이광수의 소설 『꿈』, 배창호의 영화 『꿈』 간의 수용을 살피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조신』은 구전설화지만 이를 정착시킨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신은 여자를 욕망하는 윤리적 문제를 지닌 스님이다. 김씨랑과 부부연을 맺지 못한 것을 원망하다가 꿈을 꾸다. 그러나 꿈속은 조신의 욕망 전개보다는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여 인간이 그것에 대응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성보다는 운명을 인정하고 각몽 후 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은 당대 민중들의 극심한 고통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일연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부부연을 맺었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은 자아의 성찰을 위한 충격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신의 욕망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광수의 소설 『꿈』은 <조신의 욕망 → 분노 → 무상념 → 꿈>으로 나아가다. 조신의 욕망이 성취되었으나 그의 내면에 흐르는 죄의식은 지속적이다. 그래서 소설 『꿈』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조신이 모례를 만나 정죄 당하고 옥에 갇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형장에 끌려 갈 때의 그를 통해 잘못된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을 볼 수 있다. 그는 죽음이 무서워 꿈을 꾀다. 따라서 이것은 『조신』에서 보여주는 빈곤을 비롯한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소설 『꿈』은 『조신』을 수용하여 인간의 욕망에 따른 죄

성을 고발하고 잘못된 욕망의 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창호의 영화 『꿈』은 <조신의 욕망(충동적 애욕<sup>49</sup>) → 꿈>으로 시작된다. 달레는 조신의 애욕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조신』·소설 『꿈』과 달리 조신과 달레의 갈등이 크게 나타난다. 조신이 달레의 외도를 탓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설 『꿈』에 흐르는 죄의식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이 부부로 사는 동안 주변인들과 자녀의 죽음, 경제적 궁핍은 조신을 핑계하게 만들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달레 탓으로 돌리는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이어진다. 조신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꿈속에서 깨닫지만 왜곡된 욕망이 불러온 불행을 막지 못했다. 평목을 살해했고, 화랑 모례에 대해 살의를 품었으며, 결국 달레는 나병으로 죽었다. 따라서 영화 『꿈』은 왜곡된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자행한 폭력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세 작품에서의 조신은 자신의 욕망이 불변할 것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가 깨달음을 통해 성속(聖俗)의 온전한 분리를 이룬다. 이러한 꿈 이야기들은 종교적 색채의 강조가 아니라 인간이 정체성을 갈구하는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은 인간의 욕망과 그 깨달음의 다양성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수용 과정에서 그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49) 조신은 꿈으로 진입하면서 달레를 겁탈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조신은 달레를 향한 사랑의 성질과는 달리 조신은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정욕의 대상으로 달레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배창호, 『꿈』, 제작 이태원, 1990.

이광수, 『꿈』, 지식의 숲, 2013.

일연, 이동환 역, 『조신설화』, 『삼국유사』, 도서출판 장락, 2000.

### 2. 논문 및 단행본

곽정식, 「<조신전>의 갈래 규정」, 『논문집』 21-2, 경성대학교, 2000, pp.45-60.

김다인, 「배창호 감독의 ‘기쁜 나의 젊은 날’①」, 『인터뷰 365』, (<http://interview365.mk.co.kr/news/1389>), 2008년 7월 22일.

김두호, 「보고 싶었던 기쁜 우리 배창호」, 『인터뷰 365』, (<http://interview365.mk.co.kr/news/517>), 2008년 1월 14일.

김미령,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 연구』3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pp.113-136.

김영진, 『공(空)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3.

김지석, 「낭만적 탐색자」, 『영화연구』9호, 한국영화학회, 1993, pp.82-109.

김호성,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 정우서적, 2012.

남정희, 「『삼국유사』 소재 설화 『조신』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 이광수 소설과 신상옥·배창호의 영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7, 국제어문학회, 2013, pp.199-223.

송백현, 「춘원의 『꿈』에 나타난 전승 모티프의 수용양상」, 『국어국문학』1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0, pp. 87-99.

안재석, 「각색영화를 통한 배창호 감독 연구 - 각색 시나리오의 서사 변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양연석, 「꿈의 관념과 소설변이과정연구」, 『인문학연구』2,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pp.135-163.

\_\_\_\_\_, 『영화언어』 편집위원회 엮음, 『영화언어 - 1989년 봄에서 1995년 봄까지 II』, 시각과 언어, 1997.

오대혁, 「『조신전』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pp.349-386.

- 유용오, 『배창호 감독의 꿈』(배창호 감독님을 사랑하는 모임, <http://cafe.naver.com/baechangho.cafe>)
- 이강욱, 『야담의 꿈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과 반조(返照)』(『한국문학논총』65, 한국문학회, 2013, pp. 59-88.
- 이광수, 『이광수 전집』6, 삼중당, 1973.
- \_\_\_\_\_, 『이광수 전집』7, 삼중당, 1973.
- 이상우, 『<꿈>의 각색과 그 의미- 이광수의 소설, 오영진의 시나리오, 신상옥의 영화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1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2, pp.201-234.
- 이용남, 『『조신』의 소설화 문제 - 『잃어버린 사람들』·『꿈』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pp.191-209.
- 이윤석, 『조신설화의 문학적 가치에 관한 소고』, 『국제전통문화연구』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1988, pp.167-189.
- 이인경, 『233-2-(15)』,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2.
- 임철호, 『조신설화 연구』, 『연세어문학』7-8, 연세어문학회, 1976, pp.267-284.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 정인량, 『정인량 칼럼 - 춘원 이광수의 꿈에 대하여』, 『기독일보』, 2013년 3월 8일.
-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조신전을 해부함-』, 『어문학』32, 한국어문학회, 1975, pp.117-134.
-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8.
- 채용복, 『조신구조의 분석적 고찰』, 『어문학』49, 한국어문학회, 1988, pp.203-217.
- 최창록, 『환몽소설과 꿈이야기』, 푸른사상, 2000.
- 홍순래, 『꿈이란 무엇인가?』, 어문학사, 2012.

**Abstract**

A Study on semantic change in the process accepting 「Josin」  
- Focused on Lee Gwang Su's novel *The Dream*,  
and Bae Chang Ho's movie *The Dream* -

Jo, Seong-Sook

Lee Gwang Su's novel *The Dream* is based on 「Josin」, Bae Chang Ho's movie *The Dream* is based on Lee Gwang Su's. These works was easily revealed how a human being interprets his own life and the world by searching the change of fundamental desir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like enlightenment can be highlighted using the dream as a subject. Also, the intention of the writer is easily embodied in the dream.

「Josin」 showed the behavior of the human response to it to expand the development problems of life rather than a desire in dreams. Lee Gwang Su's novel *The Dream* said it is not easy to cease humanity's fundamental desire. And Bae Chang Ho's movie *The Dream* said it is necessary to throw away an obsession with a distorted desire. 「Josin」 through *The Dream* longed for a sincere truth after the dream of awakening. Therefore, this study is found that 「Josin」 is based on Lee Gwang Su's novel, and this is based on Bae Chang Ho's movie again, which the meaning is changed.

Key Word : desire, dream, enlightenment, acceptance, meaning, change

조성숙

소속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소 : (630-792)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양덕동, 메트로시티A 115-2002)

전화번호 : 010-9865-6615

전자우편 : jss6615@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